

청년의 열정 모아...국민으로 향하는 사랑

해·공군 각급부대 장병들이 혈액을 필요로 하는 주위 이웃을 돕기 위해 헌혈증을 쾌척하며 '국민의 군대'로서 역할을 다했다.

최한영 기자

백혈병 투병 시민에 헌혈증 모아 선물

해군기동함대 제주기지전대 항만방어대대 김경록·황태민·이승연·한상준 상사는 17일 제주 서귀포시청에 헌혈증 80장을 모아 전달했다.

항만방어대대 부사관들은 서귀포시청 직원이 백혈병 투병 중이라는 소식을 접하고는 그동안 모은 헌혈증을 아낌없이 내놨다. 헌혈증 38장을 기부한 황태민 상사는 “해군 창설 80주년을 맞아 국민 생명을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부대원들과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기 위한 생명나눔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부진근 서귀포시청 총무과장은 “해군기동함대에서 뜻깊은 나눔에 동참해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나눔 문화가 지역사회로 확산·지속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화답했다.

해군기동함대 장병들은 지난 3월에도 백혈병 투병 중인 서귀포시청 직원 자녀를 위



해 헌혈증 108장을 모아 전달했다.

긴급 환자 위해...헌혈증 150장 기부

공군1미사일방어여단(1여단) 8331부대는 지난 15일 대한적십자사 전남혈액원을 방문해 헌혈증 150장을 기부했다.

장병들은 지역 내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해 한마음으로 헌혈증을 모아 전달하며 생명나눔을 실천했다. 전남혈액원에 전달된 헌혈증은 긴급 수혈을 해야 하는 환자들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각각 누적 헌혈횟수 150·30회를 달성한 윤영렬 원사와 차서진 중위도 헌혈증 기부에 참여하며 의미를 더했다.

윤 원사는 “나눔의 미덕을 발휘해 생명을 살리는 데 이바지할 수 있어서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헌혈에 참여해 주위 이웃에게 힘이 되는 군인이 되겠다”고 전했다.

1 해군기동함대 항만방어대대 이승연·황태민·김경록 상사(왼쪽부터)가 17일 서귀포시청에 헌혈증을 기부하며 파이팅 포즈를 취하고 있다. 부대 제공

2 공군1미사일방어여단 8331부대 윤영렬 원사와 차서진 중위(왼쪽부터)가 지난 15일 대한적십자사 전남혈액원에 헌혈증을 기부하고 있다. 부대 제공



‘군 생활 미(me)로(路)찾기 캠페인’에 참가한 육군2기갑여단 장병들이 자신의 심리적 자원과 강점을 분석해 보고 있다. 부대 제공



해군진해기지사령부 시설전대가 17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개최한 공병관계관 기술세미나에서 참가자들이 정성춘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수실장의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 제공=변주원 하사

몸도 마음도 튼튼하게...회복탄력성 키우다

육군2기갑여단 ‘미로찾기 캠페인’

육군2기갑여단이 장병들의 성공적인 군 생활 토대가 되는 심리적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고 자아효능감을 재발견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여단은 17일 “부대별 행복플러스 및 인성교육과 연계한 ‘군 생활 미(me)로(路)찾기 캠페인’을 지난달부터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캠페인은 장병들의 자아효능감을 높이고 군 생활 중 생길 수 있는 스트레스 요인을 효과적으로 관리·완화토록 하기 위해 열리고 있다. 회복탄력성은 실패나 역경 같은 부정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안정된 심리적 상태를 되찾는 능력을 의미한다.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전투원이 심리

적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냉정한 판단을 내리고 임무를 완수하는 기반이 된다.

곽성민(소령) 군종참모가 주관해 예하 부대별로 연 2회 열리는 캠페인에서는 △회복탄력성 교육과 검사 △심리·사회·영성·신체 영역에 걸친 심리적 자원과 강점 탐색 △명상의 시간 등 장병들이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캠페인에 참가한 번개포병대대 이보성 일병은 “긍정적인 내 모습을 되찾고 스트레스 관리와 회복탄력성 유지 방법을 배우는 기회였다”고 말했다.

곽 소령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 회복탄력성 향상 활동을 지속해 장병들의 무형 전투력과 부대 전투력을 함께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한영 기자

해군진기사, 안전한 군 건설 현장 구축 앞장

공병관계관 100명 대상 기술세미나

해군진해기지사령부(진기사)가 군 건설 현장의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진기사 시설전대는 17일 전대 대강당에서 재진지역 공병관계관 10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 강화와 중대재해 예방 등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술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는 건설 분야 안전·보건 관련 법령과 군 실무 적용방안 전파, 초빙강연, 발표, 토의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강사로 나선 정성춘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수실장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교수실장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의 관한 이해 △안전보건 패러다임의 변화 △위험성평가 실무 적용 방법 등을 소개했다.

강연이 끝난 뒤 참가자들은 건설 현장에서 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 방안을 두고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며 전문성을 향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기순(대령) 시설전대장은 “군에서의 안전은 장병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본 가치”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각종 위험요소를 사전 식별하고 선제적으로 조치해 안전한 군 건설 현장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임채무 기자